

보다 건강하게, 진화하는 견과류시장

방콕사무소

견과류시장의 절대강자 코코넛

- 태국 견과류시장은 시장판매 점유율 71%로 단연 코코넛이 주도하고 있다. 그 뒤로 땅콩이 18%, 기타 견과류가 11%를 차지하는 가운데, 2017년 태국 견과류시장의 규모는 전년 대비 4% 증가한 79만 톤을 기록했다. 202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5% 증가해 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.
- 코코넛이 견과류시장에서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는 까닭은 코코넛이 세계적인 슈퍼푸드에 인정받고 있기도 하거나 과거부터 태국의 대표 농산물로서 다양한 태국 요리와 종교의식에 많이 사용되어왔기 때문이다.

스포츠음료보다 코코넛을 선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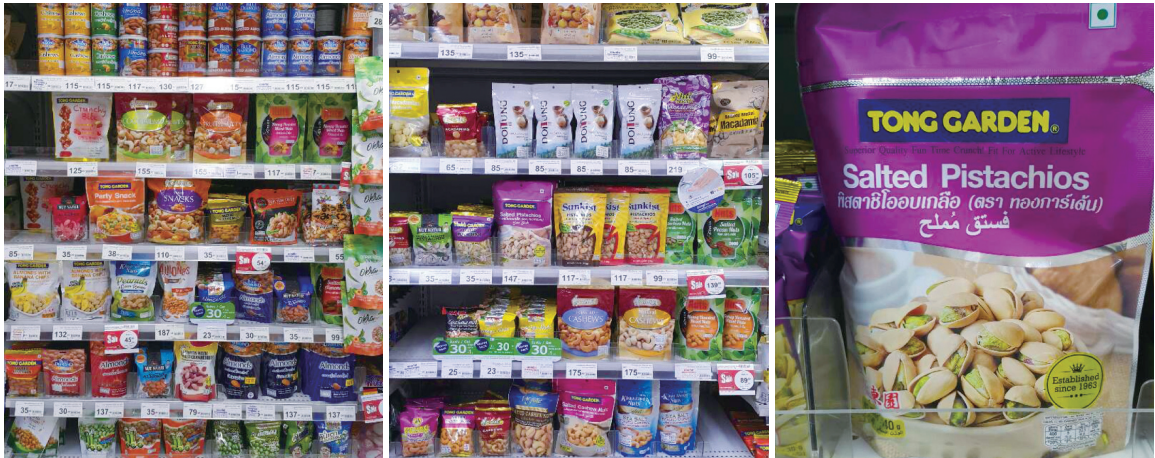
- 코코넛에 포함된 수분은 우리 몸에 쉽게 흡수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, 오래전부터 매우 신선하고 영양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왔다. 태국의 운동선수들은 수분공급원으로서 스포츠음료보다 자연적이면서 건강한 코코넛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.

- 또한, 예로부터 '순결'을 대변하는 열매로 인식되어 장례식 전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씻는 데 사용되고, 불교와 브라만 의식에서 제물로 바쳐져 왔다. 코코넛을 이용한 음식들은 현지인뿐 아니라 관광객도 즐겨먹는다. 이처럼 코코넛은 태국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.

땅콩을 비롯한 다양한 견과류 수입

- 한편 코코넛에 비해 훨씬 낮은 18%로 견과류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한 땅콩은 투자 대비 이윤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. 그래서 농민들은 쌀보다 땅콩을 재배하는 쪽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, 2016~2017년 사이 경기 둔화로 인해 쌀에서 땅콩으로의 전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. 또한 땅콩은 더 많은 영양을 공급하는 슈퍼푸드에 간주되어 소비자들의 수요 또한 늘고 있는 추세다.





태국 마트에 판매 중인 견과류

- 땅콩과 캐슈너트(cashew nuts)는 태국에서 재배되는 주요 견과류 중 하나이고 태국인의 소득 증가와 함께 건강한 생활방식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호두, 아몬드, 헤이즐넛, 피스타치오 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점점 더 많고 다양한 견과류가 수입되고 있다.

내에서도 소비자들의 건강한 소비를 유도해가고 있기 때문이다. 하지만 수입 견과류는 일반 소비자들이 선풍 구매하기에는 여전히 비싼 가격이고 ‘Villa Market’과 같은 최고급 슈퍼마켓에서만 구입할 수 있어 한동안 틈새시장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.

건강한 소비를 유도하는 트렌드

- 태국 마트에서 판매되는 포장용 견과류의 가격은 보통 1g 당 0.7바트~1바트(약 23원~34원), 고급 제품은 1g당 1.7바트(약 58원)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. 견과류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으나 순수 견과, 매운맛, 와사비 맛, 태국 대표음식인 툼얌맛 등 다양한 맛의 견과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1봉지에 40g 정도의 작은 포장 패키지들도 판매되고 있다. 더 다양한 종류의 견과류는 고급 슈퍼마켓의 수입 식품 매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.
- 코코넛은 앞으로도 견과류 부문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굳힐 것이며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. 건강한 생활 트렌드가 태국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식품시장

프리미엄 유기농시장의 가능성

-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태국 역시 건강에 좋은 견과류 과자제품이 출시되는 등 맛과 영양을 모두 고려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.
- 2012년의 유기농 견과류 시장점유율은 전체 견과류시장의 1%였으나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. 이는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견과류를 찾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.
- 수입 견과류시장에서 한국 견과류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기농 재배를 통한 고품질 프리미엄 전략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.